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⑥

대미산과 소미산



의재 허백련의 화중군자. 소치의 아들 소미산 허형은 근대 남도 화단 최고의 대가인 허백련을 가르쳐 남종화의 진수를 전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서는 드물게 5대 남계 화맥을 이어온 남도화단의 가문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가문은 양천 허가인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69-1618)의 자손인데, 광해군 때에 박해를 피해서 진도까지 피난간 이의 자손이라 한다. 이 가문이 바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애제자이며, 초의 선사(草衣禪師)에게 불교를 공부하고 다산 정약용과 교류를 이어간 조선 후기의 불유한 왕인 현종(憲宗)의 총애를 받았던 소치 허유(小癡 許維; 1807~1892)가 일인

전은 소치의 채본을 벽에 붙여놓고, 열심히 목모란(墨牡丹) 그림을 연습하고 있었다. 소치의 목모란은 이미 그 품격이 정평 나있었기에 남전도 멋진 목모란을 그리고 싶어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하인처럼 취급받던 허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남전이 그리고 있던 붓을 뺏어 들고 화선지에 목모란을 딱 하니 그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몇 시간 후,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소치선생이 제자인 남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허형이 그려놓고 나가버린 목모란 그림을 발견했다. 소치선생은 탄복하면서 남전에게 "네 목모란 그림이 이제 품격을 갖췄구나"라고 칭찬을 하자, 남전은 "허형이 그린 것"이라고 답했다. 소치선생은 이후 하인처럼 일만 부리던 허형을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명주옷을 해입히고, 그림을 가르쳐서 소치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

소미산 허형은 소치의 고매한 필치를 모두 물려받지는 못한 까닭에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근대 남도 화단 최고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을 가르쳐 남종화의 진수를 전하도록 한 그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재미있는 것은 의재 허백련

의 제자 중 판소리에 뛰어난 구함말의 기생이며,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인 행원을 운영하고, 국전심사위원까지 역임했던 남전 허산옥(1926-1933)의 호가 소치의 제자였던 김남전과 이름이 한자까지 일치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사동에서 30년 넘게 화랑을 운영하던 분이 100여 년이 넘는 장지에 멋진 목모란 그림을 보면서 "남전 허산옥의 그림"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미소만 짓다가 나왔다. 종이의 연대가 허산옥이 태어나기 전의 연대 이긴하나 호가 한자까지 같으니,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최근에 남전 허산옥의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삶이 만화로 그려져 네이버 웹툰에 '권번기생 비밀의 기억'을 타이틀로 연재됐었다. 권번기생에서 판소리의 대가로, 사군자와 화조도의 대가로서 전주 최고의 한식당 행원을 운영하며 당대의 예술가들을 제정했던 남전 허산옥을 일생을 틈나 시면 읽어보시길 바란다.

5대 남계 화맥 이은 명문 출신 허유 현종의 총애 받으며 남도화단 일으켜

의재 허(許)은 뛰어난 화재(畫材)를 지니고 있었으나 병약해 19살의 어린 나이로 병사하고 만다. 자신의 대를 이어 화맥을 전수해줄 만 아이들을 잃은 소치는 한동안 술과 가무를 벗삼아 한탄하며 세월을 지내고 있었다.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별다른 재주를 발견 못해 서인지, 집에 여러 제자들을 들여서 화숙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가르치던 소치는 한동안 별다른 희망 없이 살아가듯 했다. 후에 말행인 허은의 호미산을 물려받은 넷째 아들 허형(許溎; 1862-1938)은 기록에 의하면 마치 하인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집안일이나 거드는 신세였다고 한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소미산 허형은 어릴 적에 마마를 알아서 얼굴마저 곱보였다. 때문에 당시 최고의 멋쟁이였던 소치선생의 눈 밖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당시 화숙에서 머물던 소치의 제자 중에 호인지 이름인지 알 수 없는 성명을 가진 남전(藍田)이란 제자가 있었다. 이 제자 덕에 소미산은 형을 이어 화맥을 이었고, 남도화단에서 지금까지 융성해 한국미술사를 풍요롭게 하는 기원을 마련했다. 소치선생이 외출하고 있던 어느 날, 제자인 남



동화사 포교국장



한국의 전시감상⑩ 조선 정관일선 전사의 '유은선우음(留隱仙偶吟)'

내 마음이 곧 부처

佛在爾心頭 (불재이심두) 時人向外求 (시인향외구) 內懷無價寶 (내회무가보) 不識一生休 (불식일생휴)

부처는 단지 마음에 있건만 때에 사람들 밖을 향하여 구하네. 안으로 가없는 보배를 품고도 일생동안 될 줄 알지 못하는구나.

정관일선(靜觀 一禪; 1533-1608) 스님이 은선암에 머무르며 지은 이 시는 참다운 불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찾아 헤매는 중생의 전도(顛倒)된 생각을 읊고 있다. 기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心卽是佛)의 법을 드러냈다. 승구는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밖을 향하여 부처를 찾고자 하는 전도된 모습을, 전·결구에서는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다섯 번째 의리계주(依裏繫珠)의 비유를 들어 법을 밝혔다.

<법화경> 내용은 이렇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친구의 집을 찾아 하룻밤을 지내며 진수성찬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 이때에 부자인 친구가 바쁜 일로 가지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가난한 친구의 옷 속에 달아 주고 떠났다. 가난한 친구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결식하여 조금만 얻어도 만족하였다. 뒷날 부자인 친구를 다시 만나 옷 속에 구슬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가난한 친구

는 부자가 되어 재물로서 즐거움을 누렸다. 부자는 부처님에, 가난한 이는 중생에, 무가보는 일승에, 조금의 만족은 작은 열반에 비유한 이 내용은 사람은 본래 무가보와 같은 부처님이므로 각각의 마음 보배를 잘 운용하여야 함을 설한 것이다. 이 시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이 무가보임에도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는 중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전편에 잘게 흐르고 있어 스님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오신날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우리 각자에게 수기를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를 구하고자 하는 전도된 내 생각을 쉬어보자. 그 자리에는 그대로 무가보의 법등(法燈)이 밝혀져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할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편집국 사진부 차장

Advertisement for '백초귀장술' (Baekcho-gwizang-sul) by Baekcho.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in red and black, a subtitle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and a list of benefits: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It also includes a '베스트셀러 진입!' bad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aekcho Law School (白超律曆學堂).

Advertisement for '신묘부주밀법총해' (Shinmyobujumilbeopchonghae) by Baekcho.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in orange and black, a subtitle '신묘부주밀법총해', and a list of benefits: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날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It also includes a '화제의 신간' bad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yeongju Sorcery Research Institute (금강주술방편연구원).